

4·9총선 이슈

DJ 영향력은

‘탈 DJ’ 바람 아직은 미풍

18대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일단 DJ의 영향력은 이번 총선에서도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범여권이 대선에서 참패하고도 위기를 극복할만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DJ의 영향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등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도 DJ가 ‘한나라당에 맞설 견제 세력 구축’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호남 및 민주세력의 표심을 결집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주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DJ를 찾아가 18대 총선에서의 조언을 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총선은 대선에 비해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호남권에서의 DJ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무산된

리더십 부재 범여권 ‘金心 경쟁’

민주세력 결집 측면지원 나설 듯

다만 이번 총선에서도 양당은 김심(金心)을 놓고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DJ의 영향력은 김홍업 의원의 공천은 물론 목포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조정 등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DJ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우선 대선 과정에서 DJ의 정치적 위상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 DJ가 막후 사령탑 역할을 맡았음에도 범여권 대통합이 무산되고 대선은 참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하게 ‘DJ 책임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단순하게 ‘반 한나라당’ 구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 대선 참패의 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탈 DJ’ 바람이 거세다. 호남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더 이상 DJ에 기대기보다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남(김홍일 전 의원)에 이어 차남인 김홍업 의원(무안·신안)까지 국회 진출을 허용한 DJ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DJ 책임론’에서 더 나아가 ‘탈 DJ’로 4월 총선을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논리마저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도 DJ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유지될 전망이지만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제 호남 민심은 DJ를 극복하고 호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끝〉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 손대표-쇄신모임 면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달 31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쇄신모임 소속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천, 최고위원회 안 거친다”

신당 박재승 공심위원 밝혀

대통합민주신당 박재승 공심심사위원장은 31일 공심위가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천안을 최종결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공천안 의결과 관련,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이 당헌·당규에 있지만 제가 고쳐달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호남 물갈이’ 논란에 대해 “호남지역이 신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호남지역에 대한 쇄신이 신당 쇄신의 상징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 호남권의 공천 기준은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 계파를 상관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영택 “亞문화도시 차질없이” 西甲 출사표

4·9 총선 현장

요한 때”라며 “준비된 후보, 믿을 수 있는 후보로서 혁신과 변화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김휴섭씨 “실용보수 실현” 출마 표명

○김휴섭 전 노동일보 회장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광산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보겠다”고 출마 의지를 표명.

김 전 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쇄신의 열망을 흘러 버린 결과,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면서 “국회에 입성, 진정한 실용 보수의 정책으로 민생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창조한국당 후보로 복합 출마”

○김경진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창조한국당 후보로 광주 북갑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

광주지검 형사 3부장검사를 거쳐 지난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법률특보를 지낸 김 전 부장검사는 “호남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맞서기 위한 젊고 능력있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

조삼수씨 “광산 출마” 유권자 접촉 나서

○광산구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조삼수 예비후보가 최근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등 표심 잡기에 돌입.

금호타이어노조 위원장, 민주노동당광주전남지역본부 부부장을 지낸 조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서민 경제를 살리는 민생 정치를 실현시키겠다”면서 지지를 호소.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영식씨 ‘목포 육성 심포지움’ 개최

○목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정영식 서남권발전포럼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에서 ‘환경제도도시 목포육성 심포지움’을 개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던 정 이사장은 목포시와 광주일보 등이 후원한 이번 심포지움에서 “목포시의 환경도시화는 목포가 관광, 수산, 환경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동아병원장 ‘선거사무소’ 개소

○광주 남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재훈 동아병원 원장이 지난달 31일 지인과 선거사무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월동 국제호텔 인근 북천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총선 행보를 본격화.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남구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 예비후보는 “지금은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정치인, 비전과 전문성을 겸비한 정치인이 필

~2/5(화)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입니다!

현대백화점 HYUNDAI

8 무자년 설날 선물 종합 大展

장소: 8층 대행사점 기간: 2/1(금)~6(수)

BEAN POLE

「빈폴」 앵콜 시즌 오피 2/1~3

면티/남방	66,500원
남방/바지	각 75,600원
빈폴진	
남방/청바지	76,300/118,300원
점퍼	206,500원
빈폴레이디스	
남방/바지	75,600/115,500원
점퍼	269,500원
빈폴골프	
티셔츠/바지	131,600/138,600원
빈폴키즈	
면티/오리털점퍼	36,400/150,500원



아동 유명브랜드 기획 2/1~3

피에르가르맹	
면티/청바지	19,000/49,000원
오리털파카	50,000원
아놀드파마	
티셔츠/바지	25,000/43,000원
점퍼/오리털점퍼	40,000/145,000원

영라이브 인기상품 마감

ASK	
후드티/점퍼	29,000/59,000원
울헨	
면티/청바지	19,000/29,000원
클라이드	
청바지/코트	29,000/59,000원

패션소품 인기상품 특집

레노마 모자	10,000원
카말리 핸드백	29,000~125,000원

「블루앙페르」 선물상품 제안

스커트/바지	각 30,000원
재킷/화딩재킷	129,000/169,000원

당 2,000명 한정
현금+상품권+카드 합산가능
20만원이상 구매시
사은선물을 드립니다



중점기간: 2/1(금)~3(일) 9일간
중점장소: 8층 사은품 종합 데스크 (11시~19시) 현대백화점내
중점상품: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는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1인당 1회, 1인당 1회씩 총 2000명 한정입니다.
중점대상: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는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1인당 1회, 1인당 1회씩 총 2000명 한정입니다.

*본 광고에 게재된 상품과 교환, 환불 사유 및 상품교환에 관한 내용은 해당업체 고객센터(02-2000-2111)로 문의하십시오. 본광고의 적용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입니다. *본광고의 적용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입니다. *본광고의 적용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입니다.